

주요용어 : 분만, 여성, 태도

분만에 대한 여대생의 태도유형

여 정 회*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여성에 있어서 분만경험은 분만후 여성이 겪어야 하는 생, 여성의 역할, 신생아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애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현상으로 본다 (Fawcett, Pollio and Tully, 1992; Marut & Mercer, 1979).

최근에 분만관리의 목적을 보면, 하나는 모아에게 최상의 건강상태의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산부와 그 가족에게 최상의 분만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Wildman, Mohl, Cassel, Houston and Allerheiligen, 1997) 분만경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에 대한 관리는 의학적인 증재보다 간호학적인 증재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만경험은 다차원적인 것으로 기술하고 설명하기가 어려워 증재 방안을 찾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Waldenstrom, Borg, Skold and Wall, 1996). 분만에 대한 긍정적 경험에 관여하는 요인을 보면 분만동안 산부의 의사소통 참여, 산부 자신의 통증 조절 경험, 분만시 지지, 산부가 느끼는 통증 등 다양하다(Doering and Entwisle, 1975; Green, Coupland and Kitzinger, 1990; Mackey, 1995;

Norr, Block, Charles, Meyering and Meyers, 1977; Waldenstrom 등, 1996; Willmith, 1975).

이렇듯 분만은 임신에 따른 생리적 기전에 의한 것이지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매우 주관적이라 할 수 있다. Salmon and Miller(1990)는 분만에 대한 반응은 경험하는 통증의 양에 따르며 이를 평가하는 산모의 주관적인 인식에 달려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위자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각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추상성이 높은 개념을 객관화할 수 있는 Q방법론을 이용하여 여대생의 분만의 주관적인 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자를 분만경험이 없는 미혼여성인 여대생을 선택한 이유는 분만이전에 분만에 대한 인식들이 분만경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Areskog, Uddenberg and Kjessler, 1983; Green 등, 1990; Hodnett and Osborn, 1988; Niven and Gåjsbergs, 1984; Waldenstrom 등, 1996)에 의거한 것으로 이들의 분만의 주관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긍정적인 분만경험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여대생이 가지고 있는 분만의 주관

*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투고일 2001년 9월 10일 심사회의일 2001년 10월 11일 심사완료일 2001년 12월 11일

적인 구조(가치, 신념, 의견, 태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분만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를 탐색하여 유형화한다
- 2) 각 유형별 특성을 분석한다
- 3) 각 유형별 특성에 따른 대처방안을 모색한다

II. 이론적 배경

분만에 대한 개인의 경험은 분만상황에 대한 지각에 따라 다르며, 긍정적 혹은 부정적 분만경험을 갖게 된다. 그러나 분만경험은 분만 후 모성역할과 그들의 감정에 영향을 미쳐 남은 여성의 색깔을 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Marut & Mercer, 1979) 만약 분만경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다면 가족의 생애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Fawcett 등, 1992). 따라서 간호사는 산부들의 분만경험을 잘 파악하여 긍정적 지각을 강화할 수 있는 간호중재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분만경험은 매우 개별적인 것으로 긍정적이고 만족한 경험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개인마다 다양하다하였다(Morcos, Snart and Harley, 1989; Salmon and Miller, 1990). 그 중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산부가 느끼는 통증(Doering and Entwisle, 1975; Mackey, 1995; Norr 등, 1977; Slade, MacPherson, Hume and Maresh, 1993; Waldenstrom 등, 1996)이며, 그 외 대부분은 통증과 관련된 요인 즉 통증을 악화시키거나 완화시키는 요인, 통증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 산과적·일반적 요인 등이 있다.

따라서 만족한 분만경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분만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중재를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분만경험에 가장 영향을 미친다는 분만통증을 완벽하게 제거해 보았지만 분만경험에 만족하는 여성의 비율이 35%에 지나지 않았고, 이는 15년 전 효과적인 통증완화방법이 없을 때 비율인 37%보다 못한 수치이었다(Morgan, Bulpitt, Clifton, Lewis, 1982). 이는 통증 그 자체의 완벽한 제거는 만족한 분만경험을 구성하지 못함을 보여주며, 통증도 긍정적인 면이 있음을 나타낸다(Morgan 등, 1982; Norr 등, 1977; Salmon and Miller, 1990; Waldenstrom 등, 1996).

그러므로 긍정적인 분만경험을 위해서는 분만경험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그 다

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간호중재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김현경(1994)과 송미승(1992)은 초산모를 대상으로, 여정희(2001)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분만의 의미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를 하였으나 분만경험 현상에 대한 설명과 이해만 가능할 뿐 긍정적인 분만경험을 위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따라서 구체적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Q방법을 이용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Areskog 등(1983)은 분만에 대한 선전공포감을 표현한 여성은 부정적인 분만경험을 나타내며, 그렇지 않은 여성은 출산력에 관계없이 최근의 분만에 대해 긍정적인 경험을 보인다고 보고하였고, Waldenstrom 등(1996)은 분만통증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을수록, 분만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경험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산전에 분만통증의 조절이 잘 될 것이라고 믿는 여성이 분만통증에 매우 불안해하거나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기대한 여성보다 분만에 더 만족해 하였다(Green 등 1990; Hodnett and Osborn, 1989).

이렇듯 분만에 대한 이전의 생각이나 기대들이 분만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됨으로써 미혼 여대생을 대상으로 분만의 주관적 구조를 파악하여 그 특성에 따른 대처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분만시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여대생의 분만의 주관성 유형을 확인하고 유형별 특성을 밝히기 위하여 Q방법론을 적용한 탐색적 연구이다.

연구자는 분만에 대한 진술문을 추출하기 위해 면담과 문헌, 선행연구의 고찰을 이용하여 126개의 Q모집단을 확정하였다. Q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진술문을 Q표본이라 하며, Q표본을 표집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구조화된 방법으로 이론으로부터 출발하며 이론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유형을 찾고 기술하며 설명하기 위한 목적적인 비구조화된 방법이 있다. 본 연구는 비구조화된 표집을 사용하였다. 126개의 Q모집단에서 Q표본을 선정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여러번 반복하여 읽으면서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끼리 배열한 후 연구자 나름대로 주제를 정하

고 범주화하였다.

분판에 관한 내용은 21개의 범주로 나타났으며, Q표본의 마지막 단계로서 각 주제별 범주를 가장 잘 대표한다고 생각되거나 변별력이 높은 의미를 나타내는 진술문을 연구자 임의로 선택한 후 각 진술에 대해 긍정, 부정문을 작성하여 Q방법론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교수 1인의 지문을 얻어 최종 Q표본 27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진술문은 간호학과 교수 1인과 여대생 2명에게 Q분류를 행하도록 하여 Q분류시의 문제점의 여부와 내용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정하여 Q표본을 확정하였다<Table 1>.

Q방법론은 개인간의 차이가 아니라 개인내의 의미성

<Table 1> Q statements

1. For some reason, one feels remoteness on delivery
2. Delivery is an inevitable experience for women
3. Delivery is a natural process to have a baby
4. Delivery is an anxious process
5. Delivery is a fearful and dreadful process
6. Delivery is a valuable experience
7. Delivery is a worthwhile experience
8. Delivery is an experience one wants to go through
9. Delivery makes one to have responsibility
10. One sees delivery as a burden
11. Delivery makes one to have an abhorrence of it
12. Delivery is a dangerous process
13. Delivery is the end of pains
14. Delivery makes one to understand parents
15. Delivery is a duty for women
16. Delivery is a painful process
17. Delivery is an experience to avoid
18. Delivery makes one to have a sense of shame
19. There is no particular feeling on delivery
20. Delivery is an experience one never wishes to go through again
21. Delivery makes one to feel achievement
22. Delivery is a marvelous process
23. Delivery makes one to learn preciousness of life
24. Delivery makes one to experience motherhood
25. Delivery is a sin of being born as women
26. Delivery makes one to learn that the person is identical with her mother
27. Delivery makes one to feel the importance of oneself

이나 중요성의 차이를 다루는 것으로 Q분류를 행할 P표본의 수에는 제한받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35명의 여대생을 편의 표집방법으로 선정하였다.

P표본 대상자는 Q카드(표본으로 선정된 진술문을 두꺼운 종이위에 인쇄하고 절단하여 카드화한 것)를 읽고 동의 정도에 따라 Q분류의 분포도에 따라 강제분포하도록 하였다. Q 분류 분포도의 양극단에 있는 카드에 대해서는 선택한 이유를 면담을 통해 조사하여 응답한 내용을 여백의 종이에 기록하였고, 그 외 P표본의 인구학적 요인도 함께 조사하였다.

2.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P표본으로 선정된 대상자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후 수집된 자료를 코딩하였다. 코딩방법은 Q카드를 1점에서 9점까지 점수화하여 1점(-4), 2점(-3), 3점(-2), 4점(-1), 5점(0), 6점(+1), 7점(+2), 8점(+3), 9점(+4)으로 부여하고, 이 점수를 진술문 번호순으로 코딩하여 컴퓨터에 입력시켜 PCQ를 이용하여 Q 요인분석을 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분판에 대한 태도 유형

대상자들이 Q분류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유형은 세 가지였다. 세 개의 유형은 전체변량의 67%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유형별 설명력은 제 1 유형(성숙형)은 29%, 제 2유형(외지형)은 16%, 제 3유형(긍정형)은 22%로 분판의 인식을 설명하는데 골고루 관여함을 알 수 있었다<Table 2>.

<Table 2> Eigen values and variance for each type

type	type 1	type 2	type 3
Eigen values	10.00	5.77	7.75
Variance	29	16	22

세 유형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제 3 유형은 제 1 유형과 제 2 유형에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제 1 유형과 제 2 유형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between type

type	type 1	type 2	type 3
type 1	1.00	.57	-.65
type 2		1.00	-.46
type 3			1.00

<Table 4> Factor loading score(FLS) of respondent for each type

type 1 (N 12)		type 2 (N 5)		type 3 (N 4)	
respon- dent	FLS	respon- dent	FLS	respon- dent	FLS
13	+81	29	+76	7	-70
19	+75	9	+75	30	-70
23	+74	28	+63	8	-65
17	+73	15	+60	34	-61
26	+69	32	+58		
33	+65				
24	+65				
35	+62				
10	+57				
1	+54				
20	+47				
27	+47				

대상자 35명 중 제 1유형은 12명, 제 2 유형은 5명, 제 3 유형은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외 14명은 분류될 수 없는 복합된 사람이었다. 각 유형내에서 가장 상관관계 정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가 속한 유형의 전형적인 혹은 이상적인 사람으로 그 유형을 대표하게 된다<Table 4>.

2. 분만의 태도에 대한 유형별 특성

분만의 태도에 대한 각 유형별 결과해석은 27개의 진술문 중 유형별로 나타난 강한 부정적 동의(-4,-3)와 강한 긍정적 동의(+4,+3)를 보인 항목을 중심으로 해석하여 다른 유형과 비교하였으며, 각 유형과 상관관계가 높은 대상자를 골라 Q분류과정에서 양 극단(-4,-3, +4,+3)에 놓인 항목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여 대상자가 속한 유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을 제시함으로써 유형의 특성을 부가적으로 설명하였다.

1)제 1 유형: 성숙형

분만의 태도에 관한 제 1 유형의 특성은 성숙형이라

명명할 수 있는데, 이들은 분만의 고통을 겪음으로써 생명의 귀중함을 알게 되고 엄마를 이해하게 되어 가치있는 일이라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분만의 고통 과정보다는 새 생명의 탄생을 중시하는 견해로 분만에 대한 혐오감이나 수치심은 없으며 고통에도 크게 관심이 없었다.

제 1 유형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에 포함된 진술항목을 살펴보면 가장 긍정적으로 동의한 항목은 「분만은 엄마와 동질감을 느끼게 한다」(진술문 26), 「분만은 생명의 귀중함을 알게 한다」(진술문 23)로 +4의 요인가를 나타내었고, 「분만은 가치있는 일이다」(진술문 6), 「분만은 어머니 됨을 경험하게 한다」(진술문 24)라는 항목은 요인가 +3을 보였다.

반면 제 1 유형의 대상자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동의한 항목은 「분만은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진술문 11), 「분만은 수치감을 느끼게 한다」(진술문 18), 「분만은 여자로 태어난 죄이다」(진술문 25), 「분만은 고통의 끝이다」(진술문 13)로 각 항목별 요인가는 -4, -4, -3, -3순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5> Statements showing positive response and negative response for type 1

Statement	Factor value
26. Delivery makes one to learn that the person is identical with her mother	+4
23. Delivery makes one to learn preciousness of life	+4
6. Delivery is a valuable experience	+3
24. Delivery makes one to experience motherhood	+3
11. Delivery makes one to have an abhorrence of it	-4
18. Delivery makes one to have a sense of shame	-4
25. Delivery is a sin of being born as women	-3
13. Delivery is the end of pains	-3

제 1 유형에 속한 대상자는 전체 35명 중 12명으로 가장 많이 분류되었으며, 연령은 19세에서 24세 여대생이었으며, 성교육 받은 횟수는 1회에서 7회까지 다양하였다. 이들 중 종교를 가진 대상자는 12명 중 7명이었으며, 희망하는 결혼연령은 20대 중반이후가 대부분이었다.

제 1 유형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위하여 제 1 유형의 전형적인 사람(13, 19번 대상자)을 중심으로 Q분류 과정시 양극단에 표시한 항목에 대한 면담을 기술하였다.

13번 대상자는 22세의 여대생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동의한 항목은 「분만은 엄마와 동질감을 느끼게 한다」(진술문 26)를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한 이유로 「나도 엄마가 되면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라고 밝혔다. 또한 「분만은 생명의 귀중함을 알게 한다」(진술문 23)라는 항목을 가장 동의하는 것으로 선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10달 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으며, 분만의 고통 속에서 얻게 되므로 이보다 귀중한 것은 없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13번 대상자는 「분만은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진술문 11) 「분만은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진술문 18)는 항목에 가장 부정적 동의를 나타내었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지 혐오스럽거나 부끄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만약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느낀다면 어머니로서의 자격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13번 대상자는 분만은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엄마를 이해하게 만든다는 견해를 보였다.

다음으로 제 1 유형과 상관관계 계수가 높은 사람은 19번 대상자로 24세의 여대생이었다. 그녀가 가장 높게 동의한 항목은 13번의 대상자와 같았으며, 이에 대한 이유로 「생명이 탄생하는 일이 쉽게 이루어진다면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분만이라는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을 통해 생명의 귀중함을 우리에게 알게 한 것 같다」고 밝혔으며, 또한 「태어나기 전까지 엄마 배속에서 엄마와 동질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하였다.

19번 대상자가 가장 부정적으로 선택한 항목은 「분만은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진술문 18)와 「분만은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진술문 11)로 「분만은 개인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일이므로 신성하고 가치있는 일이다. 그래서 혐오스럽거나 수치스러운 일은 아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상에서 볼 때 이 유형에 속하는 대상자 대부분은 분만은 새 생명의 탄생으로 가치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분만을 통해 부모를 이해하게 됨으로써 어른이 되어감을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분만에 대한 혐오감이나 수치심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임은 당연하였다. 그리고 분만의 결과를 중시함으로써 고통의 표현에 대한 내

용은 부각되지 않았지만 「분만은 고통스러운 일이다」(진술문 16)에 약간 긍정하는 입장을 보이며, 「분만은 겪고 보고 싶은 일이다」(진술문 8)에 중립적인 견해를 나타내어 실제 자신이 분만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견해이었다.

이러한 '성숙형'의 결과는 조정호(1994)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조정호(1994)는 분만과정에 대한 간호학생들의 심리적 반응을 살펴본 연구에서 '부모님께 감사 드린다'라는 개념을 도출하였고, 고명숙(1998)도 간호학생의 분만관찰경험에 관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고통을 실감하면서 사랑과 감사를 느낀다'라는 주제를 진술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고통받는 과정을 보고 자신도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음을 깨닫게 되고, 부모에게 효도를 다짐하고 어머니는 위대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만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에서도 '성숙함'이라는 중심의미가 도출되었으며(여정희, 2001), 초산모들 경우에도 부모 입장을 이해하며 자식의 도리를 다 하지 못함을 후회함이 도출되었다(정은순, 여정희, 1998).

이 유형은 분만과정은 위기가 아니라 성숙할 수 있는 자기 실현과정임을 증명했는 것이지만 분만의 결과만을 중시하고 고통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했거나 예측하지 못함으로써 분만 통증을 심하게 느끼게 될 소인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이러한 유형이 실제 분만을 하게 되면 예측하지 못한 분만통증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경험이 될 확률이 많다고 볼 수 있다. Niven and Gåjsbergs(1984)는 통증수준에 대한 기대는 분만경험의 중요한 예측자로 지적하였으며, Green 등(1990)에 의하면 통증에 대한 불안감이 크면 분만에 대한 만족감이 저하되고 산후에도 안녕정도가 낮음을 보고하였으며, 통증을 예측하고 약물중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기대한 여성들은 그렇게 되었고, 통증에 대해 자아조절을 기대한 여성들은 그 목적을 달성하고 높은 만족정도를 나타내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유형 대상자들에게는 분만통증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이 타당하다 생각된다. 분만과정에 대한 비디오 시청이나 직접적인 관찰을 통하여 아픔 정도를 느껴보게 하며, 분만에 대한 생리적 기전과 아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분만통증은 완화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교육함이 분만경험을 긍정적으로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2) 제 2 유형: 의지형

제 2 유형 대상자들은 분만은 여자의 도리로서 또는 여자이니까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분만결과에 뒤따르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이를 의지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결과 즉 분만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밝힌 연구는 아직 없었지만 분만의 결과에 대해 걱정됨을 표현한 연구는 있었다(고명숙, 1998; 김현경, 1994; 여정희, 2001).

제 2 유형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이 유형에서 나타난 가장 긍정적인 항목과 가장 부정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Table 6>과 같다.

<Table 6> Statements showing positive response and negative response for type 2

Statement	Factor value
9. Delivery makes one to have responsibility	+4
23. Delivery makes one to learn preciousness of life	+4
22. Delivery is a marvelous process	+3
1. For some reason, one feels remoteness on delivery	+3
2. Delivery is an inevitable experience for women	-4
15. Delivery is a duty for women	-4
25. Delivery is a sin of being born as women	-3
8. Delivery is an experience one wants to go through	-3

이 유형에 속하는 대상자들 구성을 보면 전체 대상자 35명 중 5명이었으며, 연령은 19세에서 22세 사이였고, 희망하는 결혼연령이 26세, 27세, 30세, 32세, 34세로 대체로 늦게 결혼하기를 원하였다. 이들 중 한 대상자는 아기 낳을 생각이 없다고 말하였으며, 그 이유를 자신에게 좀 더 투자하고 싶고 아직 자식을 낳아 기를 자신감이 없다고 말하였다.

제 2 유형의 전형적인 사람은 29번과 9번 대상자로 그들이 선택한 가장 긍정적인 항목과 가장 부정적인 항목을 진술함으로써 이 유형에 대해 부가적으로 설명하였다.

29번 대상자는 20세 여대생으로 낙태, 성폭행, 임신 분만과정, 성생활, 피임방법 등 여러 내용의 성교육을 받은 학생이었다. 그녀가 가장 긍정적으로 동의한 항목은 「분만은 생명의 귀중함을 알게 한다」(진술문 23)

와 「분만은 어머니됨을 경험하게 한다」(진술문 24)로 '분만은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하고 고통을 감내하면서 어머니의 아픔을 동감할 수 있다' 고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반면 가장 부정적으로 동의한 것은 「분만은 여자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진술문 2)와 「분만은 여자의 도리이다」를 선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였다. '과거에는 아기를 낳지 못하면 여자의 도리를 다 하지 못하였다하여 쫓겨나는 것이 당연시되었지만 지금은 결혼도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듯이 설명 임신을 하였더라도 자신이 원치 않으면 분만이 라는 책임을 다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 대상자는 「분만은 겪어 보고 싶은 일이다」(진술문 8)에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어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만은 경이로운 것이지만 자신은 아직 분만을 경험해 보고 싶지 않다는 인식을 가졌다.

다음은 9번 대상자로 22세 여대생으로 종교는 없으며, 희망하는 결혼연령은 30세이었다. 그녀는 「분만은 가치있는 일이다」(진술문 6)와 「분만은 보람있는 일이다」(진술문 7)의 항목을 가장 선호하였고, 이유는 '자기를 닮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가치있고 보람있는 일이다' 라고 말하였다. 한편 가장 부정적으로 동의한 항목은 「분만은 여자로 태어난 죄이다」(진술문 25)와 「분만은 여자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진술문 2)를 선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유로 '분만은 경이롭고 가치있는 것으로 여자가 죄가 많아서 아픔의 고통을 신께 받았다는 말은 있을 수도 없으며, 분만은 여자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가 아니라 자신이 원한다면 언제든 할 수 있는 것 같다' 고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이 유형에 속하는 대상자들은 분만이 여자의 도리이고 운명이라는 말에 강하게 부정하며, 분만을 결혼과 이어지는 현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분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면을 고려한 후 자신이 원할 때 분만하기 바라는 견해를 가졌다. 그리고 분만과 더불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분신인 자식에 대한 책임때문에 약간의 부담감을 느꼈다. 이러한 유형은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하셨던 부모님 세대의 생각과는 달리 개인주의와 현실주의에 입각한 신세대들의 생각을 알게 하였다.

특히 이 유형의 대상자 중 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에 아기를 가질 수는 있지만 낳는 것은 선택할 수 있다고 진술함으로써 오늘날 성개방의 심각성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견해는 미혼모의 발생과 낙태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 후 분만을 거부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현상인 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칠 소인을 가졌다.

따라서 이 유형의 대상자들에게는 성과 관련된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초 중 고등학교에서 성에 대한 교육은 이미 하고 있지만 내용과 방법면에서 다시 재검점할 필요가 있으며,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올바른 결혼관, 가치관, 부모됨과 부모의 역할뿐만 아니라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도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3) 제 3 유형: 긍정형

분만의 태도에 대한 제 3 유형의 특성은 긍정형이라 명명하였다. 이들은 분만을 가치있고 보람있으며, 신기한 것으로 경험해 보고 싶어하고 한번 더 경험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들은 분만은 여자의 죄가 아니며,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지도 않는다고 표현하였다.

<Table 4>에서 보듯이 제 3 유형은 이 유형을 대표하는 대상자(7번, 30번, 8번, 34번)들과 부정적 상관관계(-70, -70, -65, -61)를 가지므로 이 유형과 대상자들이 가진 특성은 서로 반대됨을 말한다. 따라서 이 유형을 대표하는 분포에서 가장 긍정적인 항목과 가장 부정적인 항목을 서로 바꾸어 설명하였다.

제 3 유형을 대표하는 분포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동의한 항목은 「분만은 가치있는 일이다」(진술문 6)와 「분만은 보람있는 일이다」(진술문 7)이며, 그 다음으로 동의한 항목은 「분만을 겪어 보고 싶은 일이다」(진술문 8)와 「분만은 신기한 것이다」(진술문 22)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부정적으로 동의한 항목은 「분만은 여자로 태어난 죄이다」(진술문 25)와 「분만은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진술문 18)이며, 그 다음으로는 「분만은 두 번 경험하고 싶지 않다」(진술문 20)와 「분만은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진술문 11)는 항목으로 나타났다.<Table 7>.

제 3 유형에 속한 대상자는 전체 대상자 35명 중 4명으로 연령은 20세에서 22세까지 여대생이었으며, 모두 자연분만을 원하였다.

이 유형의 전형적인 대상자는 7번과 30번으로 이들이 Q분류과정시 면담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여 이 유형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7번 대상자는 이 유형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사람으로 그녀가

<Table 7> Statements showing positive response and negative response for type 3

Statement	Factor value
6. Delivery is a valuable experience	+4
7. Delivery is a worthwhile experience	+4
8. Delivery is an experience one wants to go through	+3
22. Delivery is a marvelous process	+3
25. Delivery is a sin of being born as women	-4
18. Delivery makes one to have a sense of shame	-4
20. Delivery is an experience one never wishes to go through again	-3
11. Delivery makes one to have an abhorrence of it	-3

가장 긍정적으로 선택한 항목 중 하나는 「분만은 신기한 것이다」(진술문 22)로 이를 선택한 이유를 '자신의 몸에서 또 다른 생명이 나온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하다. 자궁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크기에서 3.3Kg 아기가 태어나기까지의 과정이 신비롭다'고 진술하였다. 또 다른 하나는 「분만은 가치있는 일이다」(진술문 6)는 항목으로 '분만을 통하여 태어난 나의 아기가 한 사회의 일꾼이 되면 아기를 낳은 장본인인 나도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그녀는 「분만을 겪어 보고 싶은 일이다」(진술문 8)라는 항목에 요인이 +3을 부여하여 상당히 동의하는 견해를 보였다. 반면 가장 부정적으로 동의한 항목은 「분만은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진술문 11)와 「분만은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진술문 18)로 이에 대한 이유는 '분만은 자신의 죄가 섞인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과정인데 끔찍하다거나 혐오스럽기보다는 여자로서 인생의 한 과정으로 당연한 것이며, 오히려 불임이나 임신할 수 없는 여성들이 수치심을 더 느끼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하였다.

그 다음으로 제 3 유형과 상관관계가 높은 대상자는 30번의 여대생으로 그녀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분만은 선택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가치있고 보람된 일로써 수치스럽거나 혐오스럽지 않으며, 나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한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제 3 유형이 생각하는 분만은 가치있고 신기하며 보람있는 것으로 경험해 보고 싶어하며, 선택받은 사람만이 가능하며, 이로 인한 혐오감이나 수치심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라 단정하였다.

이 유형은 세 가지 유형 중 분만에 가장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들은 분만을 가치있고 보람있는 경이로운 현상으로 겪어 보고 싶어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분만관찰 후 경험을 연구한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즉 조정호(1994)의 연구에서는 '승고한 생명의 탄생' 이라는 범주를 도출하였고, 고명숙(1998)의 연구에서도 '분만과 생명탄생의 과정에서 신비함을 느낀다'는 주제를 표현하여 비록 분만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아기의 탄생은 가치있고 신비하며 귀엽고 소중함을 느꼈다. 그리고 이들은 「분만은 두 번 경험하고 싶지 않다」에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 다시한번 경험할 수 있음을 나타내어 분만을 경험한 여성과는 대조적인 견해이었다. Davenport-slack and Boylan(1974)은 산모들에게 분만통증이 얼마나 아픈지 물어본 결과 97%에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통증 중에서 가장 심한 고통이었다고 대답하였고, 이미라와 조정호(1991)의 연구에서는 '아기를 또 낳을 수 있다'가 14.52%이며, '다시 낳고 싶지 않다'가 38.71%로 실제 분만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는 낳고 싶지 않음을 표현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들은 분만경험이 없는 미혼여성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이 가능하였는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다른 유형보다 분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이 강함은 사실이었다.

따라서 긍정적인 기대는 긍정적인 경험과 관련이 있다고 Green 등(1990)이 제시하였듯이 이 유형은 어떤 유형보다도 긍정적인 분만경험을 하게 됨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통증에 대한 자아조절에 대한 실제적 경험과 기대간의 불일치는 더 많은 통증을 경험하게 되어 만족스럽지 못한 분만경험을 낳게 되므로(Schroeder, 1985) 분만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의 제공과 더불어 분만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강화한다면 만족한 분만경험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V. 결론 및 제언

분만은 여성의 생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경험으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 받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며, 사람마다 매우 주관적인 느낌을 갖는다.

본 연구는 미혼 여대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닌 분만에 대한 의견이나 태도 등 주관적인 구조를 파악하여 긍정적인 분만경험을 유도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

고자 시도하였다. 따라서 각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추상성이 높은 개념을 객관화하기에 유용한 연구방법인 Q방법론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여대생의 분만에 대한 의견 및 태도는 세 가지 유형으로 발견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다음과 같았다.

제 1 유형은 성숙형이었다. 이들은 분만을 통해 생명의 귀중함을 알게 되고, 임파를 이해하게 됨으로써 분만은 가치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분만의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여 분만의 고통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함으로써 분만시 통증을 심하게 느끼게 될 소인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에게 분만통증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있는 기회를 제공함이 필요할 것이다.

제 2 유형은 의지형이었다. 이들은 분만은 여자이니까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분만의 결과에 대한 책임때문에 자신이 원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임신을 하더라도 분만할 여건이 되지 못할 때에는 분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어 미혼모의 발생과 낙태, 인구감소라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인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에게 성과 관련된 올바른 가치관과 결혼·생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제 3 유형은 긍정형이었다. 이들은 분만을 가치있고 보람되며, 신기한 것으로 경험해 보고 싶어하고 한번 더 경험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가졌다. 이 유형은 세 가지 유형 중 분만에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긍정적인 분만경험이 될 소인은 많지만 만약 비현실적인 기대를 한다면 더 만족스럽지 못한 분만경험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분만에 대한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분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며, 더불어 분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여대생들이 지닌 분만에 대한 개념, 의견과 태도의 전반적인 이해와 설명을 가능하게 하여 분만관리에 새로운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며, 신세대들의 성문화에 대한 견해도 나타나 성교육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미혼 여대생들의 분만에 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생애에 대한 인식과 결혼관이 세대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References

- Areskog, B., Uddenberg, N. and Kjessler, B. (1983). Experience of delivery in women with and without antenatal fear of childbirth. *Gynecol Obstet Invest*, 16, 1-12.
- Cho, C. H. (1994). A review of responses of nursing students following clinical maternity nursing practice. *J Korean Acad Maternal and Child Nurs*, 4(1), 41-51
- Chung, E. S. and Yeo, J. H. (1998). Women's experience of labor pain: Phenomenological method. *Korean J Acad Women Health Nurs*, 4(2), 203-216.
- Davenport-Slack, B. and Boylan, C. H. (1974). Psychological correlates of childbirth pain. *Psychosomatic Medicine*, 36(3), 215-223.
- Doering, S. R. and Entwisle, D. R. (1975). Preparation during pregnancy and ability to cope with labor and delivery. *Am J Orthopsychiat*, 45(5), 825-837.
- Fawcett, J., Pollio, N. and Tully, A. (1992). Women's perception of Cesarean and vaginal delivery: Another look. *Res Nurs Health*, 15, 439-446.
- Green, J. M., Coupland, V. A. and Kitzinger, J. V. (1990). Expectations, experiences, and psychological outcomes of childbirth : A prospective study of 825 women. *Birth*, 17(1), 15-24
- Hodnett, E. D. and Osborn, R. (1989). Effects of continuous intrapartum professional support on childbirth outcomes. *Res Nurs Health*, 12, 289-297.
- Kim, H.K.(1994). *A study on the childbirth experience in primiparas*. The Graduate School of Jeon Buk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Jeon Buk, Korea.
- Koh, M. S. (1998). The observational experience of labor and delivery by student nurses in the clinical setting. *J Korean Acad Nurs*, 27(4), 1-9.
- Lee, M. L. and Cho, C. H. (1991). The meaning of pain in labor. *J Korean Acad Nurs*, 21(1), 41-47.
- Mackey, M. (1995). Women's evaluation of their childbirth performance. *Matern Child Nurs J*, 23(2), 57-72.
- Marut, J. S. and Mercer, R. T. (1979). Comparison of primiparas' perceptions of vaginal and Cesarean births. *Nurs Research*, 28(5), 260-265.
- Marcos, F., Smart, F. and Harley, D. (1989). Comparison of parents' expectations and importance ratings for specific aspects of childbirth.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 141, 909-914
- Morgan, B. M., Bulpitt, C. J., Clifton, P., and Lewis P. J. (1982). Analgesia and satisfaction in childbirth(The queen charlette's 1000 mother survey). *Lancet*, 2, 808-811.
- Niven, C. and Gijbsbergs, K. A. (1984). A study of labour pain using the McGill Pain Questionnaire. *Soc Sci Med*, 19, 1347-1351.
- Norr, K. L., Block, C. R., Charles, A., Meyering, S. and Meyers, E. (1977). Explaining pain and enjoyment in childbirth. *J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8, 260-275.
- Salmon, P. and Miller, R. (1990). Women's anticipation and experience of childbirth: The independence of fulfillment, unpleasantness and pain. *Br J of Medical Psychology*, 63, 255-259.
- Schroeder, M. A. (1985). Development and testing of a scale to measure locus of control prior to and following childbirth. *Matern Child Nurs J*, 12, 262-266.
- Slade, P., MacPherson, S. A., Hume, A. and Maresh, M. (1993). Expectations, experiences and satisfaction with labour. *Br J Clinic Psychol*, 32, 469-483.
- Song, M. S. (1992). *A meaning of vaginal*

delivery perceived by primiparas. The Graduate School of Chung 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Seoul, Korea.

Waldenstrom, U., Borg, I. M., Skold, M. and Wall, S. (1996). The childbirth experience: a Study of 295 new mothers. *Birth*, 23(3), 144-153.

Wildman, K. M., Mohl, V. K., Cassel, J. H., Houston, R. E. and Allerheiligen, D. A. (1997). Intrathecal analgesia for labor. *J Family Practice*, 44(6), 535-540.

Willmuth, L. R. (1975). Prepared childbirth and concept of control. *JOGNN*, 4, 38-41.

Yeo, J. H. (2001). A nursing college women's meaning of labor and delivery. *J Korean Acad Women's Health Nurs*, 7(2), 203-211.

- Abstract -

Attitudinal Type on Delivery for College Women

Yeo, Jung-Hee*

Purpose: This study was formed to propose a theoretical background trying to create a positive delivery experience by understanding college women's subjective accounts (their view

and attitude) on delivery. Method: Q-methodology was used to appreciate the highly abstract concept in an objective manner, since delivery can be assessed differently with each experience. Result: There were three types of opinions about the delivery in college women. The first type (matured type) understood delivery to be a precious experience that enables women to gain the value of life through labor pain, and granted them more appreciation to their own mothers. The second type (will type) recognizes delivery as an option rather than an obligation for women. They think women chooses whether or not to experience the process, especially since delivery requires a great deal of responsibility. The third type (positive type) takes delivery as a valuable, worthwhile, and marvelous process that they wish to experience. They are not even afraid of giving birth multiple times. Conclusion: The study explains and allows us to understand college women's overall opinion and attitudes about delivery. Thus this study aids the seizure of an opportunity to build a theoretical base for delivery management.

Key words : Delivery, Women, Attitude

* Department of Nursing, Medical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